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사랑과 생명의 나눔을 이웃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 1988년故 김수환추기경님에 의해 설립되어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나눔 운동과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톨릭재단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VOL. 253
2024

06

설렘의 순간을
선물해 주세요.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

가로 5미터, 세로 7미터 남짓한 공간의
보트에서 생활하는 프까.

하지만 프까의 마음은 좁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육지 학교로의 소풍은
프까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달리고, 노래하고, 공부하며 더 넓은 세상을
꿈꾸는 프까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더해지면, 프까는 한 달에
한 번뿐만 아니라, 보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도
육지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가슴속에 설렘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빈곤, 재해, 전쟁, 질병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은 배움의 설렘을 꿈꿉니다.

지금 바로 후원에 참여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지구촌 아이들에게
큰 설렘을 선물할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눠주세요.
지구촌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며,
우리 모두 설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24년 현재 마다가스카르, 케냐, 탄자니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우간다 등지에서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 설렘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구촌 빈곤퇴치 후원하기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88년 설립 이래
전 세계 76개 국가에서 772개 사업을 통해
지구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684-077777

예 금 주 |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후원문의 | 02-774-3488

희망의 설렘을 안고 :

안나스쿨에서의 따뜻한 만남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홍보대사
방송인 오수진 아가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홍보대사 오수진입니다. 지난 4월, 저는 본부 실무자들과 함께 캄보디아 지원 현장 중 한 곳인 안나스쿨에 다녀왔습니다. 안나스쿨은 캄보디아 푸삿 지역 8개 마을의 가난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도심과 떨어진 수상 가옥에서 살면서 주민등록조차 되지 않아 학교를 갈 수 없는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 캄보디아의 햇빛은 무척 뜨겁습니다. 기온은 40도, 체감 온도 45도. 게다가 습도도 높습니다. 이런 때에 기상 캐스터였던 저는 '불쾌지수가 높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와 같은 멘트로 날씨를 알려드렸을 겁니다. 저도 불쾌지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인데, 캄보디아에서는 신기하게도 힘들거나 짜증 났던 적이 없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이 스스로에게도 큰 힘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사실 비행기 안에서만 해도, 설레고 흥분되는 마음 한편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심장 이식 후에 매일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만큼, 약한 면역 탓에 탈이 나면 어쩌나, 위생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 어쩌나, 자꾸 걱정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기꺼이 견디리라, 어느 정도는 기꺼이 나를 희생하리라 다짐하고 갔지만, 출발하자마자 스스로의 안녕에 대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스스로 우습기도 했습니다.

걱정이 무색하게도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모두 예쁘더군요. 아이들은 잘 정돈된 학교에서 뛰어놀며 좋은 음식을 먹고, 밝고 활기차게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고, 웃음소리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순수하게 기쁨을 찾는 반짝이는 눈들과 저를 맞아주던 해맑은 미소가 잊히지 않습니다. 뻔한 얘기지만 베풀러 갔다가 되려 인생을 살아갈 마음의 힘을 잔뜩 얻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본부의 활동이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홍보대사로서의 제 역할의 중요성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 활동의 의도나 동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것일 겁니다.

스스로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후원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이 아름다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하고, 더 많은 설렘의 순간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저와 안나스쿨의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평화를 빕니다.

지구촌
빈곤퇴치
후원하기

후원계좌 _ 우리은행 1005-684-077777

예금주 _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후원문의 _ 02-774-3488



후원하기



따뜻한 밥상 위로 피어나는 사랑

명동밥집 봉사자 신현경



봉사를 하는 날 아침이면 자원봉사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명동밥집 기도문'을 바치고 공동체로서의 자세를 다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커다란 공터로 나와 큰 접이식 텐트를 펼치고, 카펫을 펴고, 1인용 접이식 밥상과 의자를 정리하며, 본격적인 배식 준비를 합니다.

11시, 신부님과 모든 봉사자들이 모여 손님들을 향해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배식을 시작합니다. 봉사를 처음 시작하고 얼마간은 이 순간이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서 처음 접하는 주변 친구들과의 첫 만남과 같이 저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배식은 오후 4시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하루에 보통 850명에서 많게는 900명 이상이 식사를 합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잡념은 사라지고, 나에게 새로운 경험과 따뜻한 마음을 선사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와 딸이 모처럼 다 같이 모인 주말이었는데, 아내는 "당신 얼굴에 늘 있던 날섬이 보이지 않고 인상이 푸근해졌네"라고 반갑게 말했고, 딸은 "아빠, 요새 전과 달리 편해 보여요"라고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동밥집에서 봉사를 하며 받는 따뜻한 시선과 감사 인사가 제 얼굴에 늘 있던 날섬을 녹여주고, 잔뜩 굳어있던 인상을 푸근하게 만들어 주었나 봅니다.

명동밥집 봉사를 하며 듣게 되는 가족과 지인들의 따스한 덕담에 만 40년을 교직에 몸담으며 강의와 연구, 대학원생 지도로 늘 긴장감 속에서 찡그린 표정으로 살아왔던 제 스스로에게 연민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번은 찢힌 피곤함에 지친 표정의 손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 끊임없는 기침 때문에 제대로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다른 손님들 자리를 정리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은 이미 자리를 떠나셨고 밥풀, 양념 조각, 국물이 테이블과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홀연히 자리를 비우신 그 손님을 생각하면, 더 챙겨드리지 못했던 미안함과 함께 혹시 나도 모르게 찡그린 표정을 지어 손님께 불편을 끼쳤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밥상 위로 피어나는 웃음을 보면 그 모든 감정들이 사라집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는 "정말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며 인사하시는 분들의 미소를 볼 때면 뿌듯한 마음만 남습니다.

명동밥집에서 봉사하는 동안 저는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느낀 따뜻한 변화, 손님들의 감사 인사에 녹아내린 어두운 얼굴, 그리고 밥상 위로 피어나는 웃음들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명동밥집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하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랑합니다.

**명동밥집
후원하기**

무료급식 후원 _ 우리은행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활사업 후원 _ 우리은행 1005-304-138483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 문의 _ 02-774-3488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명동밥집 봉사자 문의 _ www.mdbj.or.kr (명동밥집 홈페이지 참조)



후원하기



한마음한몸
정기·일시후원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한마음한몸의 새로운 후원자가 되어서서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준)

정기·일시후원 참여신청 및 문의

02)774-3488

5월의 새로운 한마음한몸 나눔 가족입니다

총 126명 | 일반후원자 81명, 명동법집 후원자 45명

일반후원자 (주)상지개발 | 강경림 마르치아나 | 고기덕 |故석형순 마리아 | 광상훈 | 구진형 | 권닌은 | 권솔 이레네 | 김경희 미카엘라 | 김경희 루시아 | 김광중 라파엘 | 김보훈 루카 | 김수정 보나 | 김재완 | 김준성 | 김지은 | 김태은 카타리나 | 김하결 | 김한성 안젤로 | 김현실 데레사 | 김형준 미카엘 | 김희영 가브리엘라 | 나현주 라파엘라 | 남윤혜 | 라혜전 안나 | 박민재 카타리나 | 박성범 | 박창호 안젤로 | 박찬호 | 배일권 도미니코 | 서현주 세실리아 | 손현희 | 심그레고리오 | 안남 | 안미란 | 양세령 | 어휘경 대건안드레아 | 여승신 | 오수정 | 오정훈 | 유소윤 세실리아 | 유채민 | 윤연숙 발비나 | 윤준식 안드레아 | 이건희 프란치스코 | 이다훈 제노 | 이루경 | 이린미 낸시 | 이상호 요한 | 이옥녀 | 이유미 | 이인숙 크리스티나 | 이재원 미카엘 | 이종우 | 이지원 세실리아 | 이현열 | 이효재 세라피나 | 인디유 | 임주영 오스만나 | 임채민 | 장덕진 펠릭스 | 장민욱 요셉 | 전진수 | 정금숙 | 정민호 | 정성래 엘리사벳 | 정숙희 | 정영희 카타리나 | 정월명 아나다시아 | 정유진 스텔라 | 조용철 바오로 | 조이수 | 착한콜위드고 | 채현근 라파엘 | 천옥연 레지나 | 최봉문 요셉 | 최서현 | 최순영 | 하희주 | 한세나 카타리나 | 황선중

명동법집후원자 강해경 비비안나 | 고영석 | 광기훈 | 광주원 베드로 | 권정숙 | 김영호 토마스 | 김윤식 | 김준경 보나 | 남미희 | 문미향 제노베파 | 문선영 | 민병민 | 민지혜 | 박영주 | 신주연 | 안혜준 | 양수연 보나 | 윤성원 요셉 | 윤정호 | 이민주 마르치아나 | 이상은 | 이승연 요안나 | 이시은 모니카 | 이정구 안나 | 이종숙 | 이해석 | 이화경 | 이화선 안젤라 | 임은하 | 임준우 | 전금지 | 전해정 | 정아진 | 조문정 | 조세현 라우렌시오 | 조지원 미카엘 | 진솔미 | 최다혜 | 최봉순 엘리자 | 최선규 | 최영선 | 최영선 알비나 | 최원재 사도요한 | 최현정 클라라 | 홍은희



생애주기별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생애주기별기부'는 생애 뜻깊은 날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의 이름으로
나눔의 기쁨을 선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상 속의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부입니다.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준)

생애주기별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99

5월의 생애주기별기부 나눔 가족입니다

총 124명

첫번째 기부 김다현 | 백승아 스크라스티카 | 백승훈 베네딕토 | 이규리 | 오유준 레오 | 우아진 릴리안 | 유원호 바오로 | 김나민 엘리사벳 | 박하늘 도로시 | 이윤진 스텔라 | 유채은 카타리나

두번째 기부 강효원 플로라 | 김단아 디아나 | 김단우 레오 | 김리온 라파엘 | 김리한 미카엘 | 김진유 프란치스코 | 유준우 바오로 | 윤라온 | 장유준 | 홍채원 가브리엘라

세번째 기부 권태현 안드레아 | 김리우 | 안주연 | 양예원 에밀리아 | 양지우 | 이수호 | 정다인 | 정이든 마르티노 | 지혜로 | 황지우 로사리아 | 황은우 그레고리오

네번째 기부 강태린 세라피나 | 김경윤 미카엘라 | 박시우 귀베르토 | 박지인 | 박채은 마리스텔라 | 서예림 마리스텔라 | 소시연 베로니카

다섯번째 기부 김비오 비오 | 박예민 사도요한 | 백민수 토마스 | 유현서 마리루시아 | 이서현 스텔라 | 조민서 스텔라

여섯번째 기부 김선예 클로틸다 | 김서현 다니엘 | 김정인 | 박서인 임마누엘라 | 박서현 노엘라 | 박찬송 티모테오 | 백민재 바오로 | 이은빈 로사리아 | 이재이 로즈마리 | 최송민 라파엘라 | 황로하 | 황재이

일곱번째 기부 권연준 안토니노 | 김서인 | 김하윤 소피아 | 배지수 유스티나 | 유주아 올리비아 | 전서운 엘리사벳 | 조재윤 라파엘

여덟번째 기부 양건 | 오지율 레아 | 윤하영 스텔라 | 이나온 리카르다 | 이윤진 스테파노 | 이윤승 | 황재연

아홉번째 기부 김주원 프란치스코 | 류다은 프란체스카 | 민소은 | 최은준 야고보 | 최하진 마리아

열번째 기부 배민서 로사 | 이지민 프란치스코 | 정연아 | 정하준 요셉 | 차은아 페트로

열한번째 기부 김은총 프란치스코 | 오하정 카타리나 | 윤주미 마리아 | 정하람 마리스텔라 | 최아윤 에스텔

열두번째 기부 고은혜 스텔라 | 김나윤 마리스텔라 | 오시현 라파엘 | 임다경 미카엘라 | 정하윤 로사

열세번째 기부 장수아 | 장수아

열여덟번째 기부 심세형 안드레아 | 이서현

스무번째 기부 심우형 다니엘

생일, 축일, 기타 기념일 등 감사 기부 금성호 대건안드레아 | 배선경 수산나 | 양정운 레오나 | 양정은 그라시아 | 이선희 아느시아마 | 이세영 미카엘 | 정연수 | (주)목동라테라산후조리원 | 화곡분동성당 첫영성체반 어린이들

고인을 기억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기부 강아지김치는 |故김영훈 요한보스코 |故김진홍 |故서창익 아나스타시오 |故양복남 |故정영숙 임마누엘라 |故최길영 프란치스코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김범주 야고보&김형선 엘리사벳 | 김재현 프란치스코&홍신아 도미니카 | 김학준 빅토르&이무늬 올리아 | 박우진 시몬&김지나 레지나 | 신동우 안토니오&김경선 소화데레사 | 유동욱 스테파노&고유미 세실리아 | 유병근 미카엘&백현주 올리비아 | 이상기 베네딕토&임영진 클라라 | 이진송 아브라함&임현주 아네스 | 이태희 필립보&손혜지 에스텔 | 차원철 베드로&최서연 클로리아 | 탁윤우 요엘&박선영 엘리사벳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나눔가게·기업 신청하시고, 1년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면
예쁘게 디자인된 나눔현판을 보내드립니다.
(2023. 6 ~ 2024. 5)

나눔가게·기업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99

340호점 서울 동작 상도로 에스에스오토서비스 | 341호점 인천 남동 인하로 골레르메이크업네일 | 342호점 충북 충주 동수길 아로미아로이 | 343호점 서울 마포 백범로 (주)갈다 | 344호점 경기 분당 민족사관사학학원 | 345호점 서울 강동 천호대로 (주)종명건설 | 346호점 서울 강남 테헤란로 리파인드902 | 347호점 서울 마포 우리학습심리상담센터 | 348호점 서울 구로 TRY(트라이) 개봉점 | 349호점 경기 시흥 신전택북이 배골점 | 350호점 경기 화성 (주)미래패키지 | 351호점 경남 거창 팔점영어학원 | 352호점 서울 송파 양재대로 가락금호상회 | 353호점 서울 강남 테헤란로 (주)멜트레이딩 | 354호점 부산 동평로 정준웅내과의원 | 355호점 경기 용인 수품로 화인한의원 | 356호점 오늘그대꽃갈다(온라인 플라워샵) | 357호점 서울 송파 양재대로 남한강물고기 | 358호점 경기 군포 엘에스 (주)케이엘에스씨 | 359호점 경기 남양주 경춘로 사랑의 꽃 | 360호점 충남 아산 온화로 불라바 | 361호점 대구 수성 카페 모란이피기까지 | 362호점 부산 수영 한양아이스리심리상담부산동부센터 | 363호점 경기 파주 (주)삼진씨앤씨

6월 한마음한몸 월례미사

일시 6. 28(금) 미사 11:00~11:40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본부를 후원해 주시는 본들의 지향을 모아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로
본부장 오승원 이나시오 신부님의 주례로 월례 미사가 봉헌됩니다.
대면 미사로만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요청드립니다.